

# 정개특위 이틀째 파행...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평행선

민주 “중대 결단...강행처리 불가”  
국힘 “합의안된 의제로 개혁 포장”  
지방선거 2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정수 확정 못하고 공전

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전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여야는 22일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를 불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반대해 전날 회의가 무산됐다면서 “막 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회 지선 기준 1035개 기초

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라고 밝힌 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하는 길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20여 년 전 끝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도 부활을 주장하며 승자독식, 지역 갈라치기 양당 기득권 강화의 당리당략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들고나와서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연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최근 성명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선거구제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반대도 모자라 심지어 시대를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식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광역의원 정수는 무리하게 10%나 확대를 하자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2차 추경 급물살

윤 당선인 “신속 추진” 공식화  
민주 “방안·규모 논의하자”  
늦어도 5월 국회 처리 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이를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이처럼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에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

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밀릴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국제정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아니라 1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모두 포괄해 추경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빠른 추진력, 정무적 리더십 필요”...강기정 광주시장 출마 선언

“군 공항 등 밀린 숙제 해결”

골목상권진흥원 설립 등 공약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은 22일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면서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으로는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 밖으로는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사람의 준비, 정책의 준비, 미래 방향의 준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청와대 정부수석,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숙성된 시간만큼 구상과 준비는 더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째 논의 중인 어등산 개발, 눈치 보느라 손도 못 댄 전남방직 터, 만들고 개통도 못하는 지산C 등 시민들의 답을 원하는 데 시정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 민선 7기 시정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밀린 숙제,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겠다”며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군 공항 이전 문제 임기 4년 안에 도장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안으로는 광주 내부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내고 밖으로는 여야를 넘나들며 중앙 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상공회의소에서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와 “자동차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더해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 의료, 반도체, 마이스의 5개 신산업지구와 5개 신활력 특구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광주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면서 골목상권진흥원 설립, 5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도시였다면, 이제는 상징에서 삶의 모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합쇼핑몰이나 놀이공원, 타지역에 흔히 있는 브랜드 상점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발로 뛰어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강 전 수석은 출마 회견에 앞서 지역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국회의원 3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수석을 지내며 여야 정당과 청와대와의 조율을 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http://www.greenfuneral.kr/

##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 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입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절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어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창업주 김 영 관 회장

**상담 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